

# 문 대통령 “트럼프도 진단키트 요청해와”

## 국내 진단 시약 생산기업 ‘씨젠’ 방문

“우리 기업 진단 역량이 큰 역할 하게 될 것  
방역·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 아주 절실해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생산 중인 국내 기업을 찾아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내 진단 시약 생산기업 ‘씨젠’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미국 CNN 방송이 이곳 씨젠을 방문해 ‘어떻게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는지’를 집중 보도하는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우리의 빠른 진단기술과 신속 승인, 방역 대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다”며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분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 많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글로벌 공조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첨대에는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의료장비의 지원을 요청했다고만 소개해 공급증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내 진단키트가 포함됐음을 밝힌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내 진단 역량이 해외로부터 인정 받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적극 생산을 독려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씨젠은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법(RT-PCR)을 활용한 코로나 진단 시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국내 7개 기업 중 한 곳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과정에서 신속한 진단으로 방역 당국이 조기 진단체계를 확립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기업의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며 “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씨젠에서 연구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국은 빠른 검사와 빠른 확진, 빠른 격리와 빠른 치료로 거기에 더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검사의 정확도까지 더해져서 방역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혁신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바이러스 극복의 최일선에 계신다. 세계적으로 우

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고 완치되는 분들이 더 빠르게 늘면서 방역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미 많은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여 세계 각국의 방역

에 기여를 하고 있다”며 “씨젠의 경우에는 수출의 비중이 95%에 달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방역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과를 거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국민들은 큰 자부심과 함께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 태풍피해 농가 실질 도움 ‘성과’

김중희 의원, 정부차원 임대료 등 감면 이끌어내

지난해 태풍으로 쓰러진 도복비 전량을 정부 수매로 이끌었던 김중희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이번에는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출 원금 상환 연기 및 임대료 등 감면을 이끌어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자연재해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지원 농가 1,140호에 66억원 규모의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가는 원금상환연기 43억9,000만여원, 임대료감면 18억6,000만여원, 이자감면 3억4,200만여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결실은 평소 현장소통을 중시해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김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것이 후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안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태풍피해 농가의 건의와 호소를 귀담아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임대료 감면과 상환유예를 골자로 하는 태풍피해 농가 구제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태풍피해 농가의 피해량 산출과 추진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의 원금 상환연기와 임대료 감면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 오형수 “황방산공원 ‘힐링 도시숲’으로 조성”

221만㎡에 달하는 전주 황방산 개발을 두고 21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에 출마하는 야야 후보자 간 공약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 오형수 예비후보(전주)는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황방산공원을 유네스코 디자인을 도입하는 명품 힐링 도시숲으로 조성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일선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도시숲 건설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황방산터널을 뚫어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계획이다.

실제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이상직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2일 제1호 공약으로 황방산 개발 계획을 내세웠으며 전주와 혁신도시, 특히 국민연금기금본부와의 막대한 연계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고속도로 연결을 위해 황방산 터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수 예비후보는 “전주시가 올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부지전체를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구시대 개발공약인 황방산 터널을 반대한다. 전주시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황방산을 지켜야하며 복지전문가 오형수가 황방산공원을 명품 힐링 도시숲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 최형재 “강탈된 경선, 꼭 승리해 민주당에 복당”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무소속 최형재 예비후보(전주)가 본선에서의 승리와 함께 당선 후 민주당 복당 의지를 밝혔다.



최형재 예비후보는 2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에게 영구제명을 거둔 것 등에 대해 2016년 총선에서 컷오프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말이냐?”라고 공개 질문을 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2016년 컷오프 후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배제를 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악의적인 공천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여론조사 1등을 달리던 자신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컷오프 시키고, 압수수색 등 무려 두 건이나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을 인용, “악의적이고 정략적인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최형재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오로지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며 “너는 전주시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당선돼 민주당에 복당해 민주당에서 전주시민의 당당한 목소리가 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 정동영 “긴급 생활자금,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협받는 국민을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트럼프식 통 큰 추경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15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재난 기본생활자금으로 15조원을 추경할 것”을 촉구했다.

정 후보는 “15조원은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정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역량이 있다”면서 “15조원을 풀게 되면 그 돈은 100% 경제활성화로 돌아오게 돼 침체된 소비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5만명 재난기본소득과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설 지원은 잘한 일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21대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탈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탈당없이 민생당으로 등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 조배숙 ‘활력 넘치는 3無 클린 익산’ 공약 발표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는 25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경제 및 환경 분야 5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조 후보는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늦추서는 안된다”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익산민의 미래전략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후보가 제시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3無 클린 익산!’ 공약은 ▲익산형 청년벤처 실리콘밸리 조성,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왕궁현업축사 매일 조기관료 및 낭산 폐석산 폐기물 이직 처리 ▲환경재단 피해구제 및 복구 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악취·미세먼지 제로 시스템 구축 등 5가지다.

특히, “혁신창업과 제조업 혁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전략”이라며, “익산형 청년벤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익산을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자들의 메카로 만들고,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 규제특례 산단으로 지정하여 제조업 혁신거점으로 키워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골프트로피·상패제작전문 국제로타리용품 대리점

#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상패/명패  
실사현수막/각종깃발  
팜플렛/리플렛/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판촉용품  
단체복/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